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24> 송승호씨네 반려거북 ‘자라·나라·바리·토리’

환경은 건조하게 먹이는 채소로...수명 길어 평생 반려동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의미를 넘어 깊은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다. 그만큼 개와 고양이부터 햄스터, 이구아나와 거북이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지금까지 개와 고양이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행복한 동행’의 주인공은 거북이 가족이다.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송승호(27)씨는 거북이 ‘자라’·‘나라’·‘바리’·‘토리’의 아빠다. 젊은 나이지만 아래턱도 3년차가 된 능숙한 거북이 아빠다.

지난 201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승호씨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어떤 동물을 키울까 고민하던 중 지인을 통해 거북이를 알게 됐다. 퇴사 후 상승생생한 마음을 느꼈던 거북이가 가라앉혀줄 수 있을거란 기대로 거북이 두 마리를 데려왔고 이후 두 마리를 더 키우게 됐다. 자라·나라는 2살, 바리·토리는 1살이다.

승호씨가 키우는 거북이는 육지에서만 서식하는 거북이 중에서도 반려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다. 육지거북은 수중거북이처럼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어 관리가 수월하다. 성격이 매우 온순해서 조용하고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안성맞춤인 반려동물로 꼽힌다.

표범의 모피라는 뜻을 가진

‘레오파드(leopard)’라는 이름처럼 녀석들은 등껍질에 멋진 호피 무늬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지만 성체는 20~30cm까지 성장한다. 아직은 어려서 정확한 성별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평균 수명이 50~80년에 달하기 때문에 오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자라’는 승호씨네에 살고 있는 거북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다. ‘나라’와 함께 2018년 6월 승호씨네 집에 왔다.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둘의 성격은 정 반대다. 자라는 항상 많이 먹기 때문에 승호씨는 돼지와 거북이를 합친 ‘돼북’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나라의 성격이 소심해서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밥에는 입도 대지 않는다. 아무도 없으면 그제서야 밥을 먹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식단짜기가 쉽지 않다.

레오파드 육지거북은 오로지 채식만 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고구마, 건초, 과일 등을 주로 먹는다. 승호씨는 “네마리 각각 좋아하는 풀이 다 달라서 식단을 따로 짜줘야 하는게 조금 힘들다”며 “그래도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바리’는 숫자 4가 쓰여 있는 특이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 숫자의 의미는 모르지만 지워지지 않는단다. 바리는 충남 공주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 더욱 애뜻하다. 막내 ‘토리’는 가장 최근에 분양받은 아

이로 대전, 광주를 거쳐 목포 송호씨네 집에 입성했다. 막 집에 왔을 때는 적응기간이라 그런지 밥도 잘 안먹었는데 지금은 식욕이 넘쳐 자라의 큰 덩치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네 마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승호씨는 “거북이는 무늬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등갑 무늬와 얼굴 생김새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승호씨는 “거북이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다”며 “내 평생의 반려동물이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에 더욱 신경쓰게 된다”고 말했다.

‘레오파드 육지거북’은 주로 반건조지역이나 초원지대에서 서식해 육지거북들과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아이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맞춰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서식환경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해외 논문도 찾아보며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건조한 사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는 바닥재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육지거북은 높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한다.

“사실 이 아이들 덕분에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처음 거북이를 데려와 키우는데, 너무 금방 크니까 시중에서 파는 사육장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북이들이 살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공예 입문하게 됐어요. 거북이들이 제 은인이 된거죠. 앞으로도 자라 나라 바리 토리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히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전원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레오파드 육지거북’

호피무늬 등껍질 매력
수명 50~80년...20~30cm까지 성장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들에 안성맞춤



멋진 호피무늬 등껍질을 가진 송승호씨의 반려거북 자라·나라·바리·토리. 당근이나 고구마, 건초 등 채식을 하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은 평균 수명이 50~80년에 달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송승호씨 제공>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